

■ 제 목 : 영덕대계로



■ 위 치(도로명)

- 경북 영덕군 축산면 ~ 강구면(국지도20호선)

■ 특 징

-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위치한 관광도로로서, 39ha 면적에 이르는 해변공원, 해맞이공원과 인접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수려한 해안풍경과 해맞이 등 멋진 볼거리를 제공함
- 300여 미터에 이르는 공원의 시작과 끝 지점에는 파고라, 의자, 주차장, 나무계단 등이 잘 설치되어 있으며, 부채꽃, 패랭이꽃, 야생화, 향토수종 꽃나무 900여 그루가 잘 조성되어 있음
- 인근에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바다경관과 어우러진 이국적 정취를 느끼며 드라이브 할 수 있는 도로이기도 함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팔각산



팔각산은 각종 기암괴석들로 이루어져 산세와 주위의 경관이 매우 수려한 곳이며, 개척된 등산로는 길이 4.5km, 소요시간 3시간 정도로 등산코스로 알맞은 곳이다. 등산로의 난코스는 로프와 철봉의 설치로 산행이 단조롭지 않아 평일에도 찾아드는 등산객이 많으며, 산 앞에 흐르는 옥계계곡의 기암괴석과 맑은 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산행의 땀방울을 식혀준다.

삼사해상공원



삼사해상공원은 새해의 아침을 깨우는 장엄한 태양과 푸른 동해의 쪽빛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89년부터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해온 해상공원이다.

망향탑, 천하제일화문석, 천지연폭포, 경북대종, 삼사해상공연장, 어촌민속전시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1월 1일 개최되는 이곳의 '해맞이 행사'에는 신년의 소망을 기원하는 인파로 성황을 이룬다.

해맞이공원



영덕 해맞이공원은 전면의 푸른바다와 뒷면 넓은 초지, 해송 조림지로 열린 공간이 형성되어있는 곳이며, 랜드마크적인 등대와 인접지역에 조성된 무공해 풍력발전단지로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곳이기도 하다. 해안 청정해역이 펼쳐지는 강축도로변을 따라 전망, 휴게, 주차, 사진촬영이 가능한 소공원이 여러 곳 설치되어 있어 동해안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동해안 관광명소이다.

■ 제 목 : 동백나무와 함께하는 꿈의 60리 산양관광도로



■ 위 치(도로명)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 남평리(지방도 1021호선, 산양일주도로)

■ 특 징

- 산양관광도로는 경남 통영시 미륵도를 일주하는 총 연장 24km의 해안 일주도로로서 도로변에는 동백꽃이 심어져 있어 동백이 피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반짝이는 동백 잎 뒤로 핀 꽃을 보며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함
-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한려수도의 크고 작은 섬들이 연출하는 해안경치가 일품이며, 한적한 바닷가 어촌마을들과 조그만 포구가 정겹게 비춰지고 차창을 열면 상큼한 갯바람이 차안을 가득 메우는 최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수산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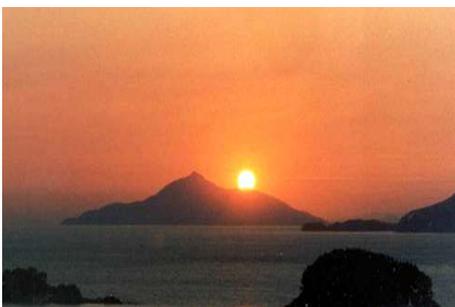
수산과학관은 수려한 한려해상공원 지역의 자연환경을 무대로 수산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영시의 관광자원이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통영의 수산업과 수산물의 발달사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하고 있어 학습탐방지로 적격일 뿐만 아니라, 끊어질 듯 끊이지 않는 무수한 섬들이 배회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천혜의 절경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미륵산



미륵산은 울창한 수림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갖가지 모양의 기암괴석과 바위굴이 있으며, 고찰과 약수, 봄 진달래와 가을 단풍이 빼어나 명산으로서의 덕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산정상에 오르면 한려해상의 다도해 조망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우며, 청명한 날에는 일본 대마도가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기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 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달아공원



달아공원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조망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곳에서는 이름을 갖지 못한 작은 바위섬에서부터 대·소장재도, 저도, 송도, 학림도, 곤리도, 연대도, 만지도, 오곡도, 추도 그리고 멀리 육지열도까지 수십 개의 섬이 한 눈에 들어온다. 예로부터 이곳은 다도 남해와 낙조의 빼어난 조망처로 유명하여 계절과 상관없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 제 목 : 보석처럼 빛나는 낙조가 아름다운 남면해안도로



■ 위 치(도로명)

- 경남 남해군 남면(지방도 1024호선)

■ 특 징

- 평산고개를 넘어 유구마을로 접어들면서 시작되는 남면해안도로는 계절별로 색다른 느낌을 주는 바다와 작은 섬, 기암괴석, 해안마을이 조화를 이루어 이국적 정취를 자아내는 남해군의 대표적인 해안관광도로임
- 남면해안도로는 남해섬의 서쪽에 위치하여 해질녘 낙조에 비치어 보석처럼 빛나는 바다가 일품이며, 장항숲이나 구미숲에서 보는 일몰도 장관임. 또한, 홍현에서 향촌까지 해안절벽을 따라 놓여진 도로의 양쪽에는 깎아지른 산과 해안절벽이 절경을 이루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살이 잔잔하다는 앵강만도 찾는 이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를 제공함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설흘산



설흘산에서 내려다보면 깊숙하게 들어온 앵강만이 한눈에 들어오고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인 노도가 아늑하게 내려다 보인다. 인접하고 있는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한려수도의 아기자기한 작은 섬들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남면 구미지역과 응봉산으로 오르는 등산로는 망망대해와 기암 괴석 그리고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다랭이마을의 풍경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산행코스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촌해수욕장



남면 사촌마을에 위치한 사촌해수욕장은 길이 650m, 넓이 20m로 전체면적이 4,000여 평인 아주 작은 해수욕장이지만 곱고 부드러운 모래와 조용한 분위기로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다. 주변 해안은 갯바위낚시로 전국에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남해군에서 폐교된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관광지로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문사



용문사는 남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절로 유명하다.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대웅전, 용문사석불, 유희경 선생의 촌은집책판 52권을 비롯하여 문화재자료 천왕각, 명부전 등이 있다. 또한 용문사의 산내 암자인 백련암은 수행처로 이름나,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인 용성스님,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석우스님, 성철스님이 머문 곳으로도 유명하다.

■ 제 목 :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 하늘재



■ 위 치(도로명)

- 충북 충주시 상모면 미륵리 ~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하늘재)

■ 특 징

- 계림령, 대원령으로도 불리는 하늘재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로서 신라 제8대 아달라(阿達羅)왕이 재위 3년(서기 156년)에 북진을 위해 개통한 곳임
- 죽령보다 수년 먼저 개통된 하늘재는 한강 하류까지 일사천리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로서 신라는 일찍이 하늘재를 교두보로 한강으로 진출하여 백제와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였음
- 전나무와 굴참나무 등이 우거진 숲길은 그리 가파르거나 험하지 않아 조용히 명상하듯 걷기에 안성맞춤이며, 역사·자연관찰로 조성으로 숲의 생태와 부근의 유적에 대한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제격임
- 충청북도 자연환경명소 100선 중 10경로 선정된바 있음
- 역사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월악산



월악산은 준협한 산세와 웅장함으로 예로부터 영산이라 불리어 왔다. 주봉에 올라보면 잔잔한 충주호와 산야풍치가 어우러져 수려한 풍광을 연출한다. 인근에는 송계계곡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맞볼 수 없는 여러 개의 계곡들이 있으며, 인근 수안보에서 온천욕을 겸할 수 있고 충주호 유람도 가능하여 내륙관광으로는 최고의 절정을 맞볼 수 있는 곳이다.

중월미륵리사지



이곳은 옛 계림령과 충북, 경북을 연결하고 있는 하늘재 사이의 분지에 펼쳐진 사지이다. 일찍이 석굴사원이 경영되었으나 오래 전에 소실되어 현재는 석조물만 남아 있다. 미륵리사지 내에는 보물 95호인 5층 석탑, 96호 석불입상이 있고 지방 유형문화재 19호 석등과 33호 3층 석탑이 있다. 관련 유물과 기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찰은 고려초기인 11세기경에 창건되었다가 고려후기인 고종 때 몽고병의 침입으로 소실된 듯하며 사찰 이름은 미륵대원이었다.

수안보온천



수안보온천은 약알카리성 단순유황리튬천으로 국내 최고의 수질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용출 온천수다. 주변에는 월악산국립공원과 충북 유일의 스키장 및 주요 문화유적지들이 즐비하여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키기에 알맞은 곳이기도 하다. 수안보온천에서는 여름철 물탕공원이벤트, 수안보온천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이다.

■ 제 목 : 내소사 전나무 숲과 오색단풍 나무 어우러진 길



■ 위 치(도로명)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석포리(내소사 진입로)

■ 특 징

- 능가산 내소사는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에 있는 유서 깊은 사찰로서 내소사 입구의 일주문을 들어서면 경내 입구까지 약 600여 미터의 전나무숲길이 조성되어 있음
- 이 전나무숲길에는 약 150년 정도된 전나무 500그루가 잘 자라 터널을 이루고 있으며,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신록과 녹음,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아름다운 설경으로 한 폭의 그림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냄
- 이 전나무숲길 끝자락에서 천왕문에 이르는 약 100m 구간에는 잘 가꿔진 단풍나무길이 조성되어 있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함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내소사



백제 무왕 34년(633)에 해구 두타가 절을 세워 큰 절을 대소래사, 작은 절을 소소래사라 칭하였다고 하며, 그 후 대소래사는 불타 없어지고, 소소래사만 남았는데 지금의 내소사는 소소래사다. 내소사는 아름다운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유서 깊은 사찰로 많은 불교도와 관광객이 찾는 곳이며, 이곳의 대웅보전은 빼어난 단청솜씨와 보살화를 연꽃문양으로 조각한 문격자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낙조대



월명암 바로 뒤편 산봉우리에 오솔길을 따라 20분쯤 오르면 서해 바다가 한 눈에 보이고 좌측으로 커다란 바위가 우뚝 솟아올라 있는데 이곳이 바로 낙조대다. 낙조대의 절경은 동해안 낙산의 일출과 이곳 서해안 부안 낙조대의 일몰로 양대 절경을 이루며, 변산의 전모가 한 눈에 들어와 풍광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직소폭포



예리한 칼날로 잘라낸 듯 육중한 암벽단애를 흰 포말을 일으키며, 뇌성 같은 소리로 쏟아지는 직소폭포의 장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대자연의 신비에 탄성이 절로 나오게 한다. 직소폭포 일대는 층암절벽 기기묘묘한 봉우리와 계곡에 흐르는 백옥 같은 맑은 물, 산곡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진달래와 철쭉, 온산을 붉게 태우는 가을단풍과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설경등 사계절의 절묘한 풍치를 한 곳에 응집시켜 놓은 듯 한 곳이다.

■ 제 목 : 젊음과 예술, 문화의 거리 【대학로】



■ 위 치(도로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대학로)

■ 특 징

-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사거리에서 혜화동 로터리에 이르는 가로로서 이 일대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의 거리로 개방하면서 『대학로』 라는 명칭을 사용함
-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문예진흥원, 문예회관 등 각종 예술단체와 공연장, 화랑 등 문화시설이 밀집한 대학로는 예술과 문화의 거리로 성장함
- 서울시에서 '젊음의 거리'로 지정받기도 한 대학로는 풍부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서울의 명소임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이화장



이화장은 우리나라 건국의 역사를 가득 담고 있는 곳으로서 1919년 6월 세계 각국에 우리의 독립을 정식으로 통보한 외교문서, 김규식에게 내린 지령문, 이승만 박사의 활동을 찍은 사진, 손님 접대에 사용하던 응접실 등을 볼 수 있다. 이곳은 1982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었으며, 안팎의 본관, 조각정, 생활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짚풀생활사 박물관



이곳은 1993년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건립하여 운영하다가 2001년도에 종로구 명륜동으로 이전되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짚풀(벚짚)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설립한 박물관으로서 짚풀 관련 민속자료 3,500점, 연장 200점, 조선뭇 2,000점, 제기1,000점, 한옥문 200세트, 이종석기증 유물 457점, 세계의 팽이 100종 등을 전시하고 있어 학습 탐방 장소로 좋은 곳이다.

아르코미술관



아르코미술관은 1974년에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1979년에 마로니에 공원 안의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곳은 국내의 대표적인 공공성 비영리 미술관으로서 전시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되며, 미술계를 선도해온 곳이기도 하다. 예술과 문화의 거리 대학로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자체기획전 뿐만 아니라 저렴한 대관료로 많은 미술인들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 제 목 : PIFF 문화의 거리



■ 위 치(도로명)

- 부산광역시 중구(PIFF 거리)

■ 특 징

- PIFF(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광장은 지난 1996년부터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면서 남포동 극장가를 우리나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와 국제적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문화관광명소로 새롭게 단장하고, PIFF광장으로 명명하면서 조성된 곳임
- PIFF광장 주변에는 국제영화제의 주무대가 되는 개봉극장들이 남포동에서 충무동 육교에 이르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포동 구 부영극장에서 충무동 육교에 이르는 400여 미터 도로에 '스타의 거리'와 '영화제의 거리'가 조성되었음
- 스타의 거리에는 매년 수상자의 손을 짚은 동판과 참가작품의 이름을 새긴 동판을 광장바닥에 깔고 있으며, 영화제의 거리에는 국제영화제 상징 아치와 현대적 감각을 지닌 조명등, 느티나무를 조성하여 운치를 더하고 있음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PIFF광장 극장가



PIFF광장 주변에는 국제영화제의 주무대가 되는 개봉극장으로 국도극장,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씨네시티, CGV남포극장 등이 남포동에서 충무동 육교에 이르는 도로변에 밀집되어 있다. 이처럼 개봉극장이 한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로 평소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네마 천국이라 불릴 만한 곳이다.

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은 부산시민의 생활터전이자 외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부산의 상징적인 재래시장이다. 이곳에는 어패류, 해산물 등을 파는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바다 전시회를 방불케 한다. 뿐만 아니라 자갈치 시장은 부두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정박해 있는 바다 위의 배를 보는 즐거움과 함께 짭짤하고 시원한 바다냄새를 맡으며 회를 먹을 수 있는 재미로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국제시장



국제시장은 부산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래규모가 큰 상업도시로서 이름을 떨치게 해주었던 상징적인 존재다. 다른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노후 된 시설, 인근 대형 백화점 및 상가들과의 경쟁 등으로 점차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피난민들의 애환이 깃든 상징적인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 제 목 : 도심속 문화향기가 가득한 길 【삼청동 길】



■ 위 치(도로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삼청동 길)

■ 특 징

- 삼청동의 지명은 산과 물이 맑고 인심 또한 맑고 좋다고 하여 삼청(三清)이라 불리어졌다는 설과 도교의 태청(太淸), 상청(上淸), 옥청(玉淸) 3위(位)를 모신 삼청전(三清殿)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음
- 삼청동 거리는 예스러움을 간직한 한옥건물의 전통미와 갤러리, 카페의 현대미가 조화되어 삼청동만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곳으로서 호젓한 산책로와 화랑, 박물관, 골동품 가게가 골목 사이에 숨어 문화향기가 가득함
-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삼청동길과 한적한 도심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청와대 앞길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매력 넘치는 거리임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북촌한옥마을



청계천의 북쪽에 자리해 이름 붙여졌다는 북촌은 다수의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전통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수준 높은 전통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곳이다.

전통한과, 음료, 폐백이바지 음식, 장류 등의 전통음식강좌, 자연염색, 오죽공예, 규방문화의 전통을 잇는 매듭, 조각보 등의 공예실기강좌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서울게스트하우스, 유스패밀리, 우리집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한옥의 멋스러움을 느껴볼 수 있다.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일의 궁궐로 태조 4년에 창건되었으며, 임진왜란(1592) 때 불탄 이후 고종 2년 흥선대원군에 의하여 중건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총독부 건물을 짓는 등 많은 전각들이 훼손되었으나, 총독부 건물 철거 등의 복원사업을 실시하여 옛 위용을 되찾고 있다. 근정전, 경희루, 향원정, 아미산 굴뚝 등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우리 전통문화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1978년에 문을 연 세종문화회관은 회전 승강무대와 영사 설비, 동양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갖춘 대강당과 소강당, 6개국의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대회의장, 300평 규모의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내·외 유명 공연, 봄·가을 상쾌한 문화체험을 선사하는 분수대 광장축제, 저렴한 입장료로 고급예술을 접할 수 있는 토요일상설무대 등으로 시민들과의 거리를 한층 좁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 제 목 : 죽령터널



■ 위 치(도로명)

- 경북 영주시 ~ 충북 단양(고속국도 55호선)

■ 특 징

- 죽령터널은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을 가로막고 있는 해발 689m의 죽령고개를 관통하는 연장 4600m의 터널로서 철도를 제외한 도로 터널로는 국내 최장 터널임
- 죽령터널의 개통으로 인해 경북 영주시~충북 단양 통행시간이 50분에서 10분으로 약 40분가량 단축되었으며, 중앙 내륙지역의 물류비용 감소 및 충북, 경북 지역의 문화교류 촉진에 기여하였음
- 고속도로 터널 최초로 TBM 굴착후 NATM 확대굴착을 실시한 터널로서 이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음
- 기능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소백산국립공원



소백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 영남지방의 진산으로 알려진 산이다. 천연기념물 주목이 군락을 이루는 비로봉을 포함하여 국망봉, 연화봉, 도솔봉 등 많은 산봉우리들이 연이어져 있으며, 산 중턱에는 고찰 회방사와 비로사가 있고, 입구에는 회방폭포가 시원한 물줄기로 피서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해마다 5월이면 만개하는 철쭉꽃과 상수리나무 숲 터널은 소백산의 아름다움을 더하며, 연중 6개월 정도 백설로 덮혀 있는 비로봉은 한국의 알프스로 불리기도 한다.

죽령폭포



죽령은 아흔아홉 구비의 험하고 힘든 고개로 유명한데 이 죽령의 중턱 부근에 죽령폭포가 있다. 아홉 척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죽령폭포는 마치 은옥(銀玉)으로 수를 놓은 듯한 신비경을 자아내며, 청정계곡이 주변의 울창한 숲과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 등산객 및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옥녀봉자연휴양림



옥녀봉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속에 조성되어 삼림욕을 즐기기에 그만이며, 군데군데 작은 오솔길이 있어 자연을 벗 삼아 산책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방갈로와 야영장, 취사장, 샤워장, 숲속교실 등의 시설이 있으며 자연휴양림 뒤로 소백산의 수려한 풍광이 펼쳐져 경치 또한 일품이다. 여장을 풀고, 소백산 등반길에 오르거나, 부석사, 소수서원, 회방계곡 등 인근 명승지를 찾아보아도 좋은 여행이 될 듯하다.

■ 제 목 : 단양 제9경 단양대교



■ 위 치(도로명)

- 충북 단양군 단성면 ~ 적성면(고속국도 55호선)

■ 특 징

- 죽령터널과 함께 중앙고속도로를 대표하는 구조물로서 교량 높이가 무려 103m에 이르는 교량임
- 국내 최초로 초고교각 타설공법인 Self Climbing Form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인근이 충주호 유람선이 운행하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설계과정부터 미관을 각별히 고려한 교량임
- 중앙내륙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은 물론 인근 월악산, 소백산, 금수산 등의 관광자원 개발에도 크게 기여한 교량임
- 예술성 및 기능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소선암 자연휴양림



소선암 자연휴양림은 단양팔경인 상, 중, 하선암 하류부근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주변에 구담봉, 옥순봉을 볼 수 있는 충주호, 사인암, 두악산, 도락산, 제비봉 등 많은 관광지와 명산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볼거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물과 공기가 맑고 한적하여 가족과 함께 편안히 쉬어가기에 좋은 곳이다.

온달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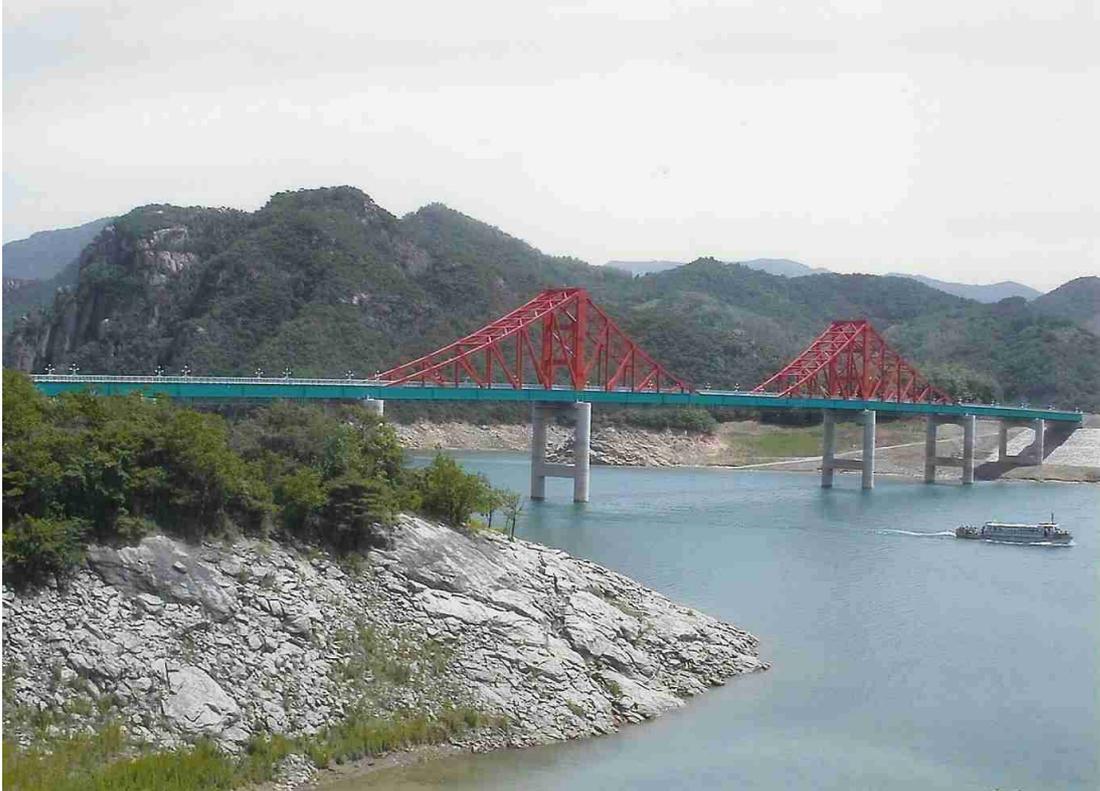
온달산성은 사적 264호로 영춘면 하리 남한강변에 있는 성산에 축성된 산성이다. 성의 북동쪽 남한강의 강변 절벽 아래에는 온달굴이라는 석회암 동굴이 있고, 성을 바라보는 북쪽 강 건너의 산에도 온달과 관계되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성벽의 보존 상태가 좋아, 축성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유적이며, 성의 아래에는 온달 동굴과 더불어 온달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다.

다리안 국민관광지



다리안 관광지의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한 물줄기와 골짜기에서 배어나오는 상큼한 공기는 찾는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준다. 원두막,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등 비롯하여 소백산유스호스텔이 있으며, 주변에는 민박과 식당을 겸한 업소가 다수 있어 단체 관광휴양지로서 더없이 좋은 곳이다. 주변에 3대동굴과, 소백산 등이 있어 등산과 피서, 휴양을 겸한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 제 목 : 청풍호반의 푸른 기운이 하늘을 만나는 다리 【옥순대교】



■ 위 치(도로명)

- 충북 제천시 수산면 괴곡리 ~ 상천리(군도 20호선)

■ 특 징

- 옥순대교는 충주댐 건설과 충주호의 담수로 인해 발생한 충북 수산면과 청풍면 일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36호선 및 국지도82호선과 연계하여 우회도로의 연결기능을 강화하며, 충주, 제천, 단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된 교량임
- 구조적으로 상현재를 현수선과 같이 곡선화하여 트러스 형상이 아름답고 지점부 강성을 크게 하여 현수교와 같은 역학거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압축재로 배치된 사재에 부재력이 작으며, 낮은 형고와 개방된 트러스구조는 내풍 안전성에 유리한 독창적인 교량임
- 단양 팔경의 하나인 구담봉, 기암절벽의 옥순봉 및 청풍호반의 아름다운 조화로 옥순대교에서 바라보는 주변 풍경은 그야말로 절경임
- 예술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옥순봉



월악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옥순봉은 제천 10경 중 8경에 속하며, 지리적인 이유로 구담봉과 함께 단양 8경에 속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풍호와 어우러져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옥순봉의 확 트인 정상부는 너른 안부와 암릉으로 이루어져 있어 쉬어가기 좋다. 또한 노송이 운치를 더하니 그 옛날 선계가 부럽지 않을 곳이 바로 이 곳이라 하겠다. 산행과 더불어 유람선을 타고 옥순봉과 구담봉의 멋들어진 석벽을 조망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청풍 문화재단지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청풍호반에 위치한 청풍 문화재단지는 보물 2점, 지방유형문화재 9점, 지석묘, 문인석, 비석 등 42점과 생활유물 2천여 점이 보관된 청소년 역사의 산 교육장이다.

이와 더불어 비봉산과 금수산을 뒷 배경으로 한 청풍호반의 뛰어난 풍광은 매년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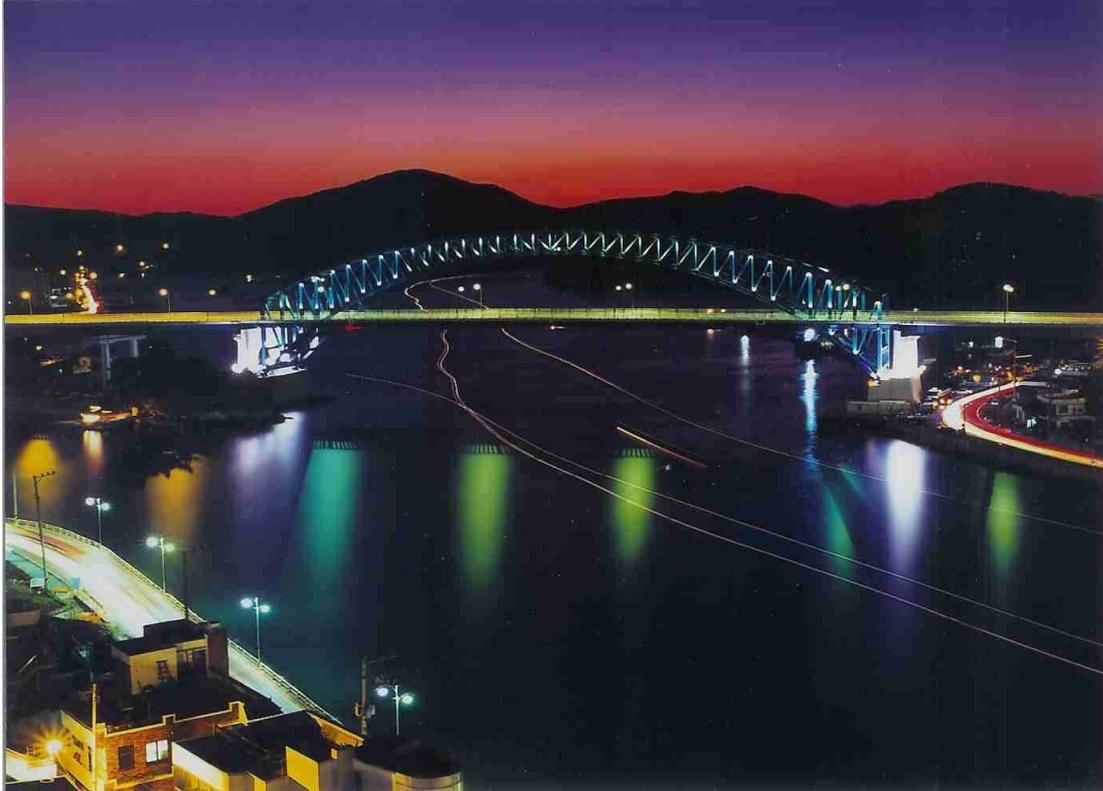
금수산



금수산은 단풍 든 산의 모습이 아름다운 산으로 여러개의 크고 수려한 산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남쪽 어댕이골과 정남골이 만나는 계곡에는 금수산의 절경 용담폭포와 선녀탕이 숨어 있다.

가을 단풍이 들면 금수산이라는 이름처럼 비단에 수를 놓은 듯 한 경치가 펼쳐지며, 산자락에 시원한 계곡과 폭포를 지니고 있어 여름철 산행지로도 제격인 곳이다.

■ 제 목 : 통영대교 야경(夜景)



■ 위 치(도로명)

- 경남 통영시 미수동 ~ 당동(국지도 67호선)

■ 특 징

- 총연장 591m, 폭 20m의 강아치트러스 공법과 프레임트러스 공법을 복합시켜 가설된 통영대교는 관광특구인 미륵도와 통영시가지에 있는 관광통영의 상징적 명소이며, 도남관광단지 개발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미륵도내 택지개발로 인한 주거인구 증가에 따라 충무교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 기여
- 교량상관 아치구간 140m에는 푸른계열 조명을 연출하는 투광등 196개를 설치 하여 밤이면 온화하고 포근한 푸른 조명과 조명이 바닷물에 반사된 투영상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자아냄
- 교량 밑으로 흐르는 물길은 통영운하로서 그 아래로 동양 최초로 조성된 해저 터널이 가로지름
- 예술성 우수

■ 주변 관광지

해저터널



1931년부터 1932년까지 1년 4개월에 걸쳐 만든 동양 최초의 바다 밑 터널로 그 크기는 길이 483m, 너비 5m, 높이 3.5m이다. 양쪽 바다를 막아 바다 밑을 파서 콘크리트 터널을 만든 것으로서, 터널 입구에 쓰여 있는 용문달양(龍門達陽)은 "섬과 육지를 잇는 해저도로 입구의 문" 이란 뜻이다. 통영에 가게 되면 통영대교와 함께 한번쯤 둘러봐야 할 곳이다.

충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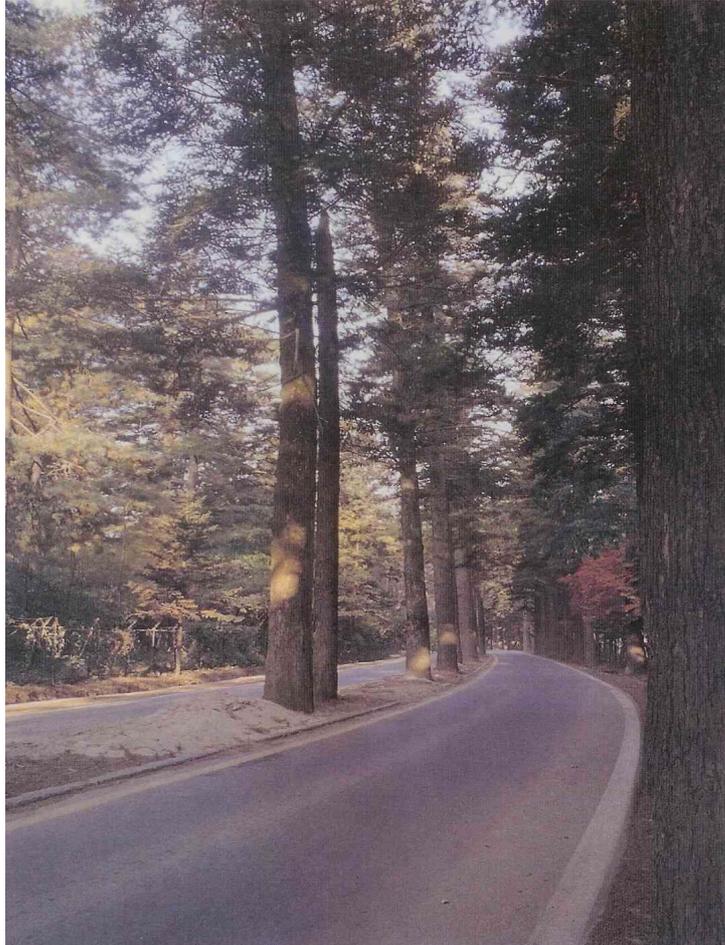
충렬사는 성웅 이충무공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으로서 임진란이 끝난 8년 후인 선조 39년에 건립되었다. 현재 충렬사는 사당을 비롯하여 동서재, 경충재, 승무당, 비각, 전시관, 강한루 등 건물 17동과 5문으로써 경역면적 2,723평으로 되어있고, 명조팔사품(보물 제 440호)을 비롯하여 지방유형문화재인 충렬묘비, 지방기념물인 동백나무와 많은 동산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남망산 국제조각공원



세계 유명 조각가 15명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 야외 조각 공원은 바다와 육지가 조화된 자연 풍경이 아름다워 통영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는 야외문화공간이다. 공원 내 청마 유치환 시인의 시비가 세워져 있으며, 이곳에서 내려다보이는 한려수도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전망대에서 남해안의 많은 섬을 조망할 수 있고, 특히 일출이 아름다운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 제 목 : 태고적 신비 【국립수목원 진입도로】



■ 위 치(도로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 봉선사~국립수목원(지방도383호선)

■ 특 징

- 남양주시 봉선사 앞부터 국립수목원에 이르는 약 2km 구간의 도로로서 하늘을 향해 시원스럽게 뻗은 나무와 울창한 수림 사이로 그윽한 운치를 자아내는 최적의 드라이브코스
- 짙은 녹음이 발산하는 수풀내음과 아늑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 도로는 특히 차량의 통행이 뜸한 이른 아침이나 신록이 싱그러운 4~5월경에 더욱 아름다움
-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와 함께 인근 고모리 카페촌 및 문화유적을 둘러볼 수 있어 잠시 여유와 낭만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임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광릉수목원



광릉숲은 약 2,204ha의 광대한 면적의 임야로 한국 제일의 원시림을 자랑하는 곳이다. 광릉숲의 임목축적량은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높으며, 이 숲에서 자라는 수목들은 대체로 70년 이상의 수령을 지니고 있다. 지난 1988년 광릉숲 일부 지역에 광릉수목원이 조성되며 일반인들의 출입이 가능해졌으나, 현재 이용객의 급증으로 인해 1일 5,000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새터유원지



새터유원지는 서울 근교의 사계절 종합 레저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으로서 특히 북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금남유원지, 강변유원지, 강변수상스키장은 하나의 권역을 이루면서 독특한 레저문화를 이끌고 있다. 이곳에는 보트장, 수상스키장, 야외 예식장, 노천카페, 방갈로, 오토캠핑장, 단체용 빌라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는 전문음식점과 호텔 등이 있어 쾌적한 휴식을 제공한다.

광릉



광릉(光陵)은 조선 제7대 왕인 세조와 왕비인 정희왕후 윤씨의 능으로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에 있으며, 사적 제197호로 지정되어 있다.

광릉은 기존 왕릉과 달리 세조의 유언에 따라 간소하게 조성되었으며, 이는 이후의 왕릉 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능으로 오르는 길에 펼쳐진 200여 미터의 숲 터널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좋은 산책로다.

■ 제 목 : 서해안 관광 배롱나무 도로



■ 위 치(도로명)

- 충남 서천군 중천면(군도 5호선)

■ 특 징

- 서천군 군도 5호선 서해안 배롱나무 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서해안 관광지의 관문 도로이며, 주변에 해송군락지, 해돋이·해짐이, 수령이 500년 된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169호), 춘장대해수욕장, 홍원항, 마량항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로이기도 함
- 도로의 대부분이 바다를 볼 수 있는 최상의 드라이브코스로 해질 무렵 차안에서 보는 낙조는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도로변 해안에는 각종 조개 및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갯벌이 널려 있고 바다낚시의 요충지와 인근에 해양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도로임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희리산 해송 자연휴양림



희리산 자연휴양림에 가면 처음 맞는 곳이 저수지로서 낚시를 겸한 산림휴양이 가능하며, 저수지를 관망하기 좋은 곳에 세워놓은 팔각정은 관광객이 주로 찾는 인기 코스중 하나이다. 이곳은 산 전체가 해송으로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간직한 채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숲속의 집과 해송림, 저수지가 잘 어우러져 있어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갯벌체험지



월하성과 선도리, 장포리는 서천 해안 중에서도 갯벌이 잘 발달된 곳으로서 이곳에서는 수많은 작은 생명체로 살아 숨 쉬는 갯벌을 몸소 체험해볼 수 있다. 살아 숨 쉬는 이곳 서천의 갯벌은 어린이들에게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어른들에게 조개잡이의 즐거움과 넉넉한 자연을 테마로 한 관광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준다.

마량리 동백숲



서천의 마량리에는 천연기념물 제169호로 지정된 500년 수령의 동백나무숲이 있다. 유난히 붉은 꽃을 피우는 이곳에 들어서면 밖과는 사뭇 다른 감흥을 느끼게 된다. 동백숲을 나와 동백정에 올라 바라보는 서해바다는 아름다운 오력도와 그 앞을 오가는 고깃배가 어우러져 평온한 바다풍경을 만들어낸다. 또한, 일몰이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하여 해질 무렵이면 사진작가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 제 목 : 하늘에 닿는 길



■ 위 치(도로명)

- 전북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 정령치(지방도 737호선)

■ 특 징

- 1987년에 건설된 주천~정령치 간 지방도 737호선은 거대하게만 느껴졌던 지리산을 한층 가깝고 친근하게 변모시킨 도로임
-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발아래를 내려다보면 남원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정면으로는 노고단, 반야봉을 거쳐 천왕봉까지 명봉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장관을 이룸
- 해발 1,172m에 달하며, 지리산 조망이 가능하고 주변경관이 우수함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광한루원



광한루원은 천체 우주를 상징하여 조성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누원이다. 이곳에는 광한루를 중심으로 영주(한라산), 봉래(금강산), 방장(지리산) 등을 뜻하는 세 개의 삼신산이 있는 호수와 오작교가 있으며, 오작교는 견우와 직녀의 안타까운 천상의 사랑을 춘향과 이몽룡을 통해 완성시킨 사랑의 다리이기도 하다. 이곳을 산책하다보면 천 년을 뛰어넘는 사랑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국립민속국악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워진 민속국악 전문기관으로, 우리 민속음악의 체계적인 정리와 보존 그리고 국악 공연과 국악 생활화를 위해 1992년에 세워졌다.

이곳에는 언제 어느 때나 국내 최고 수준의 국악공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전통문화탐방지로 더없이 좋은 곳이다.

뱀사골(지리산)



뱀사골하면 한국의 명수(名水)로 통한다. 지리산의 깊고 깊은 산록에서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빗어져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뱀사골의 청정계류는 우리나라의 으뜸 물줄기라 부를 만하다. 반야봉, 삼도봉, 토끼봉, 명선봉 사이의 울창한 원시림 지대에서 발원된 물줄기가 기암괴석을 감돌아 흐르면서 절경을 이루는 뱀사골의 계곡미 또한 장관이다. 한 여름철 가족과 함께 뱀사골을 찾아 지리산 계곡의 진수를 만끽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 제 목 : 과거와 현대의 만남 【황악로】



■ 위 치(도로명)

- 경북 김천시 다수동(국도 4호선)

■ 특 징

- 김천시의 황악로는 단순한 도로개념에서 탈피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잘 조성된 중앙분리대, 화단, 수벽식재 등을 통해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도로이며, 이 구간에 위치한 영남제일문(높이 12m, 길이 50m)은 그 웅장한 자태로 6차로 도로와 잘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장관을 이룸
- 옛 영남의 첫 관문에 위치한 영남제일문은 한식구조로 건립된 전통 구조물로 중앙에 걸려있는 현판은 서예대가 여초 김응현 선생과 각장자 이수자인 고원 김각한씨의 작품이며, 특히 무형문화재 기능자인 단청장 조정우 선생이 직접 단청한 현판 좌우 8폭의 비천상을 징, 장고, 팽과리, 포도 등 김천의 상징물을 함께 그려 품위와 고전미를 더하여 김천의 명물이 되고 있음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직지사



황악산 직지사는 신라 눌지왕 2년(418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였고 보물 제319호인 석조약사여래좌상과 보물 제 606호인 삼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7점이 있는 곳이다. 직지사 서쪽 200m지점에 있는 천룡대 부터 펼쳐지는 능여 계곡은 황악산의 대표적인 계곡으로 봄철에는 진달래, 벚꽃, 산목련이 볼만하고 가을철 단풍 또한 절경을 이룬다.

직지 문화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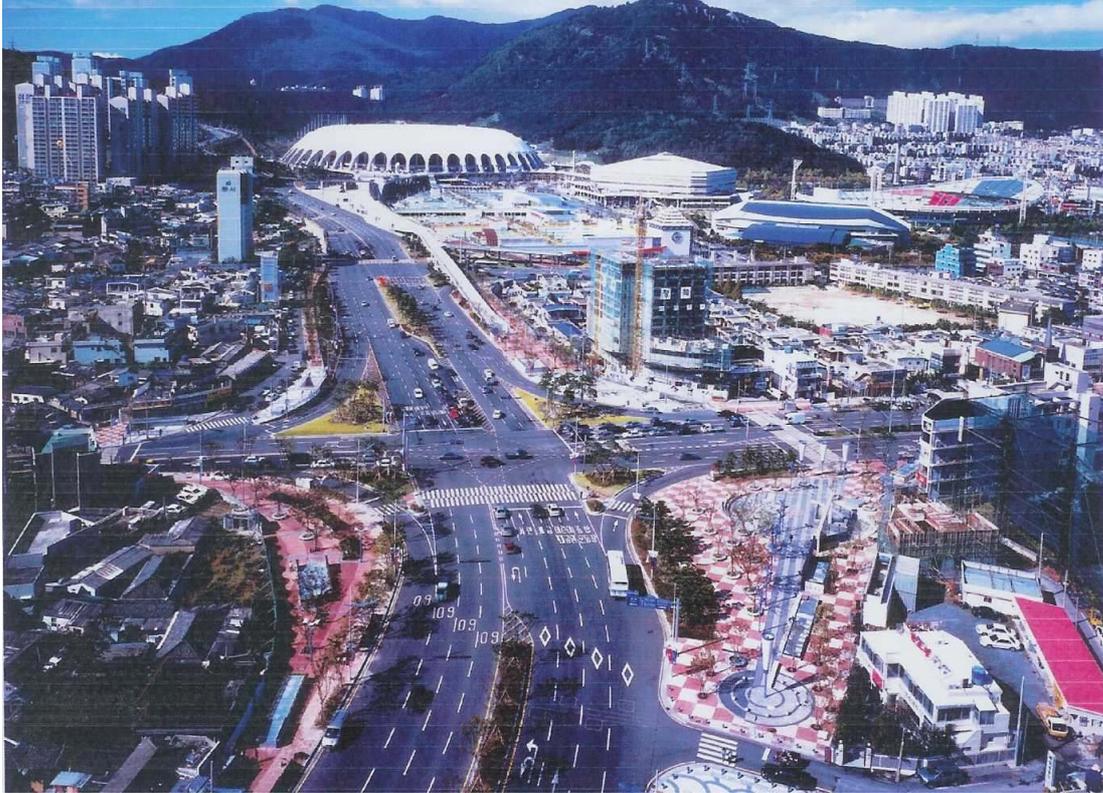
이곳에는 중앙의 음악조형분수, 대형 2단 폭포, 어린이 종합놀이시설, 산책로 등 각종 편의시설과 국내·외 17개국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 50점, 대형장승, 야외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관목류, 초목류를 식재하여 계절에 따라 최대한의 자연미가 연출되며, 음악에 맞춰 연출되는 화려한 분수쇼 및 야외 공연장 등은 이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김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영남제일문



옛 영남의 첫 관문에 위치한 영남제일문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맞배 및 팔작기와지붕 다포식 한식구조로 건립된 전통 한식구조양식의 구조물이다. 중앙에 걸려있는 嶺南第一門 현판은 서예대가 여초 김응현 선생과 각장자 이수자인 고원 김각한씨의 작품이며, 특히 무형문화재 기능자인 단청장 조정우 선생이 직접 단청한 현판 좌우 8폭의 비천상을 징, 장고, 뽕과리, 포도 등 김천의 상징물을 함께 그려 품위와 고전미를 더해 주고 있다.

■ 제 목 : 숲과 물이 있는 AG상징가로



■ 위 치(도로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 동래구(부산 AG 상징가로)

■ 특 징

-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부산 AG상징가로는 부산 AG 주경기장 주변의 일반도로로서 2002부산아시아드를 상징적으로 명소화 시키고 부산의 자연·인문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등 열린마당으로 조성된 곳임
- 전체적인 가로 시설물과 포장은 닻, 돛대, 항구 등 부산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모티브로 삼았으며, 색상도 파란색과 흰색을 사용해서 해양도시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음
- 느티나무와 남부 수종인 후박나무를 2열로 식재한 가로수 길은 운치가 있으며, 상징게이트, 으뜸분수 등 다양한 수경시설과 도로 바닥에 설치된 광섬유는 야간에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동래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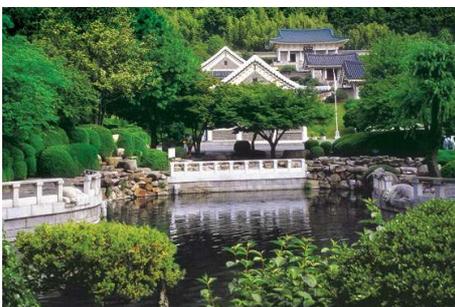
연간 관광객 400만 명이 쉬어가는 전국 6대 온천중 제일인 동래온천은 천혜의 온천수를 자랑한다. 온천장 곳곳에는 온천수를 사용하는 녹천탕, 제일탕, 현대탕 등 대중 온천 목욕탕과 호텔, 여관이 집중되어 있으며, 휴게시설을 갖춘 대형 온천시설인 허심청이 있다. 또 주변에는 금강공원, 식물원 등 각종 위락시설이 밀집되어 관광객이 즐겨 찾는 부산의 명소이다.

금강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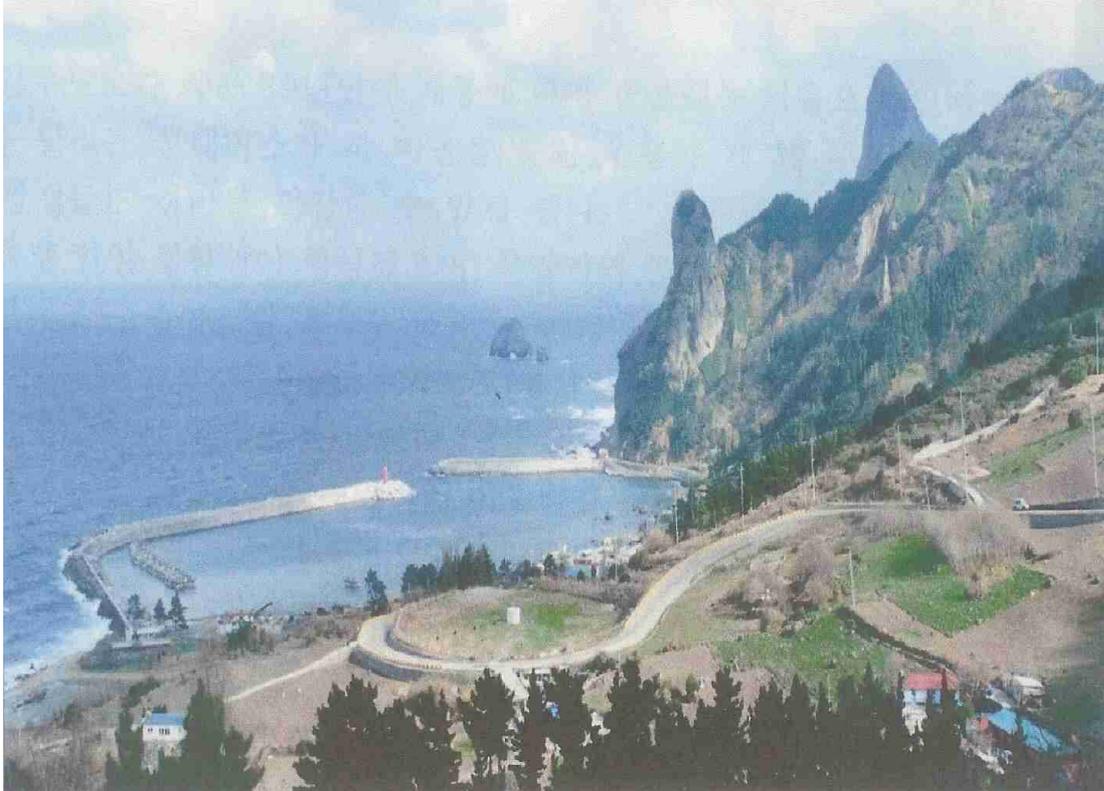
금정산에 자리잡은 이곳은 옛 부터 작은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기암괴석과 바위절벽이 울창한 송림 속에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공원에는 부산 해양자연사전시관, 동래금강 식물원과 각종 놀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시민들이 연중 많이 찾는 휴식처이다. 또 옛 동래성의 중문이었던 독진대 아문을 비롯 망미루, 임진동래의총 등 많은 문화유적과 더불어 아름다운 시비가 있다.

충렬사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이곳은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 부산진첨절제사 정발을 비롯해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선열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충렬사에는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 기념관, 정화기념비, 송상현공 명언비, 충렬탑 등의 유적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매년 5월 25일에 제사를 지내고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충렬사 안락서원에서 제향을 올린다.

■ 제 목 : 울릉도 일주도로



■ 위 치(도로명)

- 경북 울릉군(지방도 926호선)

■ 특 징

- 착공 39년만에 울릉도 일주도로의 개통으로 울릉도 일일생활권 형성
- 산간지역 마을의 접근성이 좋아져 농민들의 특산물 판매량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기암절벽과 아름다운 해안선이 어우러진 관광도로를 갖게 됨으로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
- 울릉도 일주도로로 인해 사동 흑비둘기 자생지, 불교진각종 성지, 사자암, 태하 성하신당, 북면 바다위의 코끼리바위, 송곳산, 삼선암, 관음도, 나리분지, 너와집, 용출소, 신령수 등 울릉도 관광명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성인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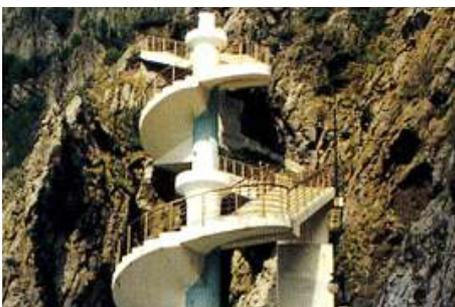
산의 모양이 성스럽다 하여 성인봉이라 불리며, 연평균 300일 이상 안개에 쌓여 신비로움을 더하는 곳이다. 해발 984m 성인봉은 형제봉, 미륵산, 나리령 등 크고 작은 산봉우리를 거느리며 섬피나무, 너도밤나무, 섬고로쇠나무 등의 희귀수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정상부근은 천연기념물 제189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상에서는 섬 전체를 관망할 수 있으며, 겨울설경이 장관이다.

행남



도동부두 해안을 따라 개설된 산책로가 절경으로 자연동굴과 골짜기를 연결하는 교량 사이로 펼쳐지는 해안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해안산책로는 행남이라는 마을과 이어지며, 이 마을에서 400m 정도의 거리에 먼 뱃길을 밝히는 행남 등대가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해송 사이로 이어지는 등대오솔길은 가을철에 노란 털머위 꽃이 군락을 이루어 장관을 연출하며, 등대에서는 저동항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죽도



울릉도의 부속섬 중 가장 큰 섬으로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곳이다. 이 섬은 울릉도와 달리 물이 없어 빗물을 모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며, 더덕과 닭백숙 요리가 관광객 사이에서 유명하다. 울릉군에서는 '93년부터 이곳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선착장 확장, 나선형 진입로 개설, 유채꽃단지, 전망대, 낚시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나선형 계단(일명 달팽이 계단)은 이 섬의 유일한 진입로이다.

■ 제 목 : 동진대교가 있는 해안도로



■ 위 치(도로명)

-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 마산시 진전면 창포리(국도77호선)

■ 특 징

- 고성군 동해면과 마산시 진전면을 잇는 동진대교는 정확히 바다로 향하는 길로서 국도77호선(국지도67호선과 중용)상의 교량이며, 동해면 해안일주도로의 일부구간임
- 리아스식 수려한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지역명소가 되고 있으며, 동진대교가 개통되면서 낚시꾼과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음
- 2개 코스로 된 동해일주도로의 총 길이는 36km로서 일주하는데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특히 동해일주도로 주변에는 옛 소가야 유적지 고분군과 낚시터, 해안절벽, 모래사장 등이 곳곳에 있어 역사탐방코스로서 뿐만 아니라 피서지로도 최적지임
- 미관성 우수

■ 주변 관광지

당항포관광지



이곳은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조성된 국민관광단지로서 충무공 영정을 모신 사당 승충사, 대첩기념탑이 있으며, 모험놀이장, 해양레포츠 시설을 비롯하여 자연사박물관, 자연조각공원, 수석전시관, 자연예술원, 민속놀이체험장, 갯벌체험장 등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호국정신 함양과 청소년현장체험학습 및 가족, 단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관광지이다.

공룡박물관



공룡박물관은 연면적 3천400여㎡ 규모에 테마별 전시실을 꾸미고 공룡의 전신 또는 부분 골격, 모형, 화석 등 96점의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다. 하루 평균 2천300여명이 박물관을 찾은 가운데 평일에는 청소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들도 줄지어 방문하고 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 5천여 명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 제 목 : 만남과 문화의 거리 【나혜석 거리】



■ 위 치(도로명)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시도 중 1-25호선, 나혜석 거리)

■ 특 징

- 나혜석 거리는 수원 태생인 최초의 한국 여성 서양화가 정월 나혜석 여사의 업적을 길이기 위해 조성된 문화의 거리이며, 문화예술회관, 효원공원, 야외 음악당 등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도로 내 분수대, 음악이 흐르는 화장실, 조경수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거리 공연과 같은 다양한 볼거리, 주변의 전문식당가로 먹거리가 산재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화와 만남이 공존하는 거리임
- 친근성 우수

■ 주변 관광지

화성행궁



화성은 조선 정조 때 실학자로 불리던 유형원과 정약용의 성설을 설계의 기본지침으로 삼아 이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성곽 중에서 구조배치가 가장 과학적이면서도 우아하고 장엄한 면모까지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다.

우리나라 성곽 건축사상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는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원천유원지



원래는 농업용수를 저수하는 인공호수로 개발된 곳이지만 넓은 호수와 주위를 둘러싼 우거진 송림 등이 조화를 이루어 피서·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변에 과채단지가 있어 농촌의 풍미를 즐기기에 적당한 호반 유원지이며, 유선(遊船), 수영장, 숙박요식업소, 오락 시설, 낚시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대·소공연장, 국제회의장, 야외공연장, 대·소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 국악당과 4개의 경기도립예술단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모세혈관 문화운동, 경기 예술교육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 국내·외 유명한 공연 및 다양한 전시회 등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가족의 휴식처로 안성맞춤이다.